

한국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도

원복연 · 정의정¹ · 장중화²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혜전대학교 치위생과 · ²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demand for the change in Korean dental hygiene curriculum

Bok-Yeon Won · Ui-Jung Jung¹ · Jong-Hwa Jang²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ejeon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ong-Hwa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 +82-41-660-1574, Fax : +82-41-660-1579, E-mail : jhjang@hanseo.ac.kr
Received: 30 January 2015; Revised: 14 February 2015; Accepted: 16 Februar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emand for the change in Korean dental hygiene curriculum. This study compared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omestic and overseas university and tri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that meets the education policy change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of 1,192 participants including dental hygiene professors,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mail, telephone call from the professors and research assistants, email, and direct visit from June 10 to August 10,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13 question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Results: The professors answere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dental hygiene curriculum as the first priority(48.9%) and dental hygienists(51.6%) and students(42.6%) chose the development of new dental hygiene curriculum($p<0.001$). In the analysis of validity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the professors gave 3.29 to the validity of evaluation for basic job performance, and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the students gave 3.05 and 3.26 points, respectively($p<0.001$). In relation to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s, the professors gave 4.17 points which implied that curriculum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thing to do.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the students gave 3.90 and 3.47 points, respectively($p<0.001$).

Conclusion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 that the revision of the current Korean dental hygiene curriculums is required. Therefore organizations related to dental hygiene including professor association and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should carefully rebuild the curriculum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They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curriculum.

Key Words: curriculum, demand, dental hygiene, dental hygienist

색인: 교육과정, 요구도, 치과위생사, 치위생학

서론

치위생학은 주로 구강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행동관리와 예방적 구강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술과 과학이다^{1,2)}. 치위생학 교육이 시작되면서 약 50년이 흘렀고 그동안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나 활동현장은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77년 전문학사 과정 개설, 1994년에는 2년

에서 3년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2002년에는 4년의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되면서 거듭 발전하였다. 아울러 치위생학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면서 구강건강전문가로서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한 기반 마련을 확립하였다³⁻⁵⁾. 대부분의 대학에서 치위생학 교육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경영관리지원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 습득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정하여 교육하고 있다⁶⁾.

치위생학 교육기관은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의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직무중심보다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치과위생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목표와 부합되지 않으며 대학 간 교육내용 및 이수학점에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전문 기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교육기관에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⁵⁾. 한편 최근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국제적인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선진국의 의료인력 유입으로 취업 난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위하락 등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준비가 요구된다⁷⁾.

치위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는 치위생 교육과정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⁸⁾. 실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직종은 인증평가를 통해 전문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⁹⁻¹²⁾.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직업인의 역할에 대한 역량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정의하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교육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전문직업인 자격의 허가, 인가, 자격증 교부와 자격 획득과 갱신을 위한 시험도 ‘역량’이라는 기준에 따라 개편하고 있다^{3,14)}.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냉철하고 면밀한 평가가 수반되어 개편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 선진화된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PBL 통합과정운영,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8-10,15-19)},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보완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위생학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과 대학교육의 정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재학생, 치위생(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횡단면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에서 치과위생사는 전국에 있는 치과병·의원을 지역별로 층화 추출하여 현재 근무자 500명을 선정하였고 교수는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에 등록된 교수 400명을 선정하였다. 학생은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지역별 층화추출하여 20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650명을 선정하여 총 1,55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임상치과위생사 436명(87.2%), 교수 137명(34.3%), 학생 619명(95.2%)이었고,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42부를 제외한 1,192부(76.9%)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임상치과위생사 436명(36.6%), 교수 137명(11.5%), 학생 619명(51.9%)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2013년 6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 치위생(학)과 교수, 치위생과 3학년 학생, 임상치과위생사 모두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선정된 임상과 대학에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일주일 후 재방문하여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교수들에게는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 수첩에 나와 있는 전자 우편으로 설문지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여 설문참여를 의뢰하였다. 아울러 방문이 어려운 치과병·의원 과 학교에는 기관장 및 학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과 설문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4. 연구도구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전공 교육과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 위해 치위

생학 교육과정 전문가 2인과 교육학자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이 모호하게 여기는 문항을 수정한 후 최종설문으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학제 등 4문항과 치위생학 교육과정 관련해서 변화 방향, 교육과정의 유용성,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IBM SPSS Statistics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다중교차분석 및 Chi-square 검정과 One-way ANOVA test 실시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변화 방향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Table 1>, ‘치위생 통합 교육과정안 개발’(4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새로운 치위생 교육과정안 개발’이라는 응답에서 각각 51.6%와 42.6%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p<0.001$).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안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부응하여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 교수는 ‘치위생 업무분야’(72.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임상치과위생사(48.4%)와 학생(49.6%)은 ‘임상분야’라고 인식하여 집단 간에 인식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2>.

치위생학의 학문적 포괄범위에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구강위생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Table 3>, 교수는 72.3%, 임상치과위생사는 52.8%, 학생은 62.4%의 분포로 나타났다($p<0.001$).

치위생학 발전을 위해 관련 학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한 분석결과<Table 4>, 교수(51.8%), 임상치과위생사(54.6%), 그리고 학생(54.8%) 세 집단 모두 ‘치위생학 연구 활성화 및 정보교류’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p=0.091$).

Table 1. Dental hygiene science and curriculum change direction is for comparison

Division	New dental hygiene curriculum development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development	Dental hygiene integrated curriculum development	Non need to change	p-value*
Professors	35(25.5)	35(25.5)	67(48.9)	-	<0.001
Dental hygienist	225(51.6)	105(24.1)	96(22.0)	10(2.3)	
Students	264(42.6)	151(24.4)	176(28.4)	28(4.5)	
Total	524(44.0)	291(24.4)	339(28.4)	38(3.2)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alpha=0.05$

Table 2. Dental hygienist's dut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fields

Division	Oral biology	Clinical dentistry	Dental hygiene	The others	p-value*
Professors	6(4.4)	32(23.4)	99(72.3)	-	<0.001
Dental hygienist	36(8.3)	211(48.4)	176(40.4)	13(3.0)	
Students	42(6.8)	307(49.6)	270(43.6)	-	
Total	84(7.0)	550(46.1)	545(45.7)	13(1.1)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alpha=0.05$

Table 3. Dental hygiene is a comprehensive range of academic comparison

Division	Oral hygiene and all related disciplines	Community oral health sciences center study	Dental clinical field with a focus on practical learning	Dentistry everything related to studies	p-value*
Professors	99(72.3)	15(10.9)	18(13.1)	5(3.6)	<0.001
Dental hygienist	230(52.8)	41(9.4)	118(27.1)	47(10.8)	
Students	386(62.4)	44(7.1)	145(23.4)	44(7.1)	
Total	715(60.0)	100(8.4)	281(23.6)	96(8.1)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alpha=0.05$

Table 4. Dental hygiene related to the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promoting things to do

Division	Joint development of professional books	Development of joint education program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Dental hygiene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The others	p-value*
Professors	5(3.6)	51(37.2)	10(7.3)	71(51.8)	-	0.091
Dental hygienist	29(6.7)	121(27.8)	48(11.0)	238(54.6)	-	
Students	36(5.8)	166(26.8)	72(11.6)	339(54.8)	6(1.0)	
Total	70(5.9)	338(28.4)	130(10.9)	648(54.4)	6(0.5)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at $\alpha=0.05$

Table 5.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current business comparison

Division	Prevertive dental treatment	Community dental health	Dental education	Dental care assistant	Dental patient management	p-value*
Professors	81(59.1)	19(13.9)	17(12.4)	11(8.0)	9(6.6)	<0.001
Dental hygienist	88(20.2)	35(8.0)	68(15.6)	105(24.1)	140(32.1)	
Students	211(34.1)	58(9.4)	125(20.2)	133(21.5)	92(14.9)	
Total	380(31.9)	112(9.4)	210(17.6)	249(20.9)	241(20.2)	

*by chi-square test at $\alpha=0.05$

Table 6. Department of educ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field*

Division	Dental prevention	Clinical dentistry	Community dental health	Dental management	The others	Total
Professors	89(34.9)	61(23.9)	52(20.4)	47(18.4)	6(2.4)	255(12.8)
Dental hygienist	148(20.6)	299(41.5)	67(9.3)	199(27.6)	7(1.0)	720(36.3)
Students	247(24.5)	432(42.8)	87(8.6)	234(23.2)	10(1.0)	1010(50.9)
Total	484(24.4)	792(39.9)	206(10.4)	480(24.2)	23(1.2)	1,985(100.0)

*Multiple response analysis

Table 7. Dental hygiene science and curriculum reorganization required course*

Division	Liberal arts	One's major	The teacher training	Overall	Total
Professors	39(21.2)	78(42.4)	41(22.3)	26(14.1)	184(12.7)
Dental hygienist	105(19.9)	294(55.8)	102(19.4)	26(4.9)	527(36.5)
Students	258(35.2)	357(48.7)	101(13.8)	17(2.3)	733(50.8)
Total	402(27.8)	729(50.5)	244(16.9)	69(4.8)	1,444(100.0)

*Multiple response analysis

2.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유용성

치위생사의 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업무에 대한 분석결과<Table 5>, 교수와 학생은 구강병 예방 진료(59.1%, 34.1%)라고 응답하였고, 임상치위생사는 치과환자관리(32.1%)라고 응답하였다($p<0.001$).

전공교육 강화 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해 교수는 예방관련분야(34.9%), 임상치위생사와 학생은 임상관련분야(41.5%와 42.8%)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

다<Table 6>.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편 과목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교수(42.4%), 임상치위생사(55.8%), 학생(48.7%) 모두 전공과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 교양과목 개편에 대해서도 35.2%가 응답하여 요구도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Table 7>.

Table 8. Major curriculum considerations

Division	To raise awareness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by field of education majors	Segmented by sector of education majors	p-value*
Professors	50(36.5)	31(22.6)	56(40.9)	<0.001
Dental hygienist	182(41.7)	210(48.2)	44(10.1)	
Students	263(42.5)	308(49.8)	48(7.8)	
Total	495(41.5)	549(46.1)	148(12.4)	

*by chi-square test at $\alpha=0.05$

Table 9. Major curriculum enhancements*

Division	Expertise for enhancing curriculum for lack of interest	The State organizes the curriculum-based test subjects	A major lack of credits	Subject-matter segmented	Major subjects of theory and laboratory and educational disparities	The field lacks the Clinical Lab	Total
Professors	64(24.0)	78(29.2)	2(0.7)	77(28.8)	31(11.6)	15(5.6)	267(14.1)
Dental hygienist	166(23.5)	137(19.4)	33(4.7)	53(7.5)	196(27.8)	120(17.0)	705(37.3)
Students	181(19.7)	264(28.8)	34(3.7)	46(5.0)	227(24.8)	165(18.0)	917(48.5)
Total	411(21.8)	479(25.4)	69(3.7)	176(9.3)	454(24.0)	300(15.9)	1,889(100.0)

*Multiple response analysis

Table 10.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ratio study

Division	Theory 30% Practice 70%	Theory 40% Practice 60%	Theory 50% Practice 50%	Theory 70% Practice 30%	p-value*
Professors	13(9.5)	39(28.5)	71(51.8)	14(10.2)	<0.001
Dental hygienist	42(9.6)	114(26.1)	206(47.2)	74(17.0)	
Students	107(17.3)	265(42.8)	201(32.5)	46(7.4)	
Total	162(13.6)	418(35.1)	478(40.1)	134(11.2)	

*by chi-square test at $\alpha=0.05$

3.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전공교육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Table 8>, 교수는 전공교육의 분야별 통폐합(40.9%)이라고 응답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전공교육의 분야별 체계적인 분류(48.2%, 49.8%)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p<0.001$).

전공교육과정 중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Table 9>, 교수는 국가시험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29.2%), 전공과목의 분야별 통폐합(28.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부족(24.0%) 순으로 응답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는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의 불균형을 개선(27.8%)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전공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의 적합한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Table 10>, 교수와 임상치과위생사는 이론 50%, 실습 50%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학생은 이론 40%, 실습 60%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p<0.001$).

4.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타당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치위생 기본 임무 수행능력평가, 교육과정 변화, 교육과정의 국제화 뒷받침 정도를 최고점수 5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Table 11>.

치위생 기본임무 수행능력 평가 타당성에 대해 교수는 3.29, 학생 3.26, 임상 치과위생사 3.05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01$). 현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교수가 4.17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는 3.90점, 학생은 3.47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p<0.00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국제화 뒷받침 정도에 대해 학생은 2.74점, 교수는 2.58점으로 인식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가 2.4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p<0.001$).

Table 11. Dental hygiene science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wareness and education

Division	N	Dental hygiene practice skills assessment	The need to change the curriculum	Internationalization of the possibilities
		M±SD*	M±SD	M±SD
Professors	137	3.29±0.71 ^a	4.17±0.75 ^a	2.58±0.74 ^a
Dental hygienist	436	3.05±0.76 ^b	3.90±0.81 ^b	2.43±0.89 ^b
Students	619	3.26±0.77 ^a	3.47±0.86 ^c	2.74±0.86 ^c
Total	1192	3.19±0.77	3.71±0.87	2.61±0.87
p-value**		<0.001	<0.001	<0.001

*Mean±Standard Deviation; **by the one-way ANOVA at $\alpha=0.05$ ^{a,b,c}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lpha=0.05$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의 주된 교육목표는 치위생과정이며, 이는 사정, 진단, 수행, 평가를 실행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예방적, 교육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¹⁾. 현행 치위생학의 교육과정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교육과정이 축소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과는 이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새로운 치위생 교육과정안 개발’이라는 전체 응답이 44.0%를 차지하였고, 특히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경우 51.6%가 응답하여 현재의 교육과정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수들의 48.9%가 ‘치위생 통합 교육과정안 개발’이라고 응답하여 교육현장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통합교육과정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가속화되어 가는 지식을 폭발적 증가로 인한 지식의 전문화, 세분화는 오히려 교육과정 통합을 역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과가 세분화 될수록 교과간의 관련성이 적어지고 추상화된 학문만을 배우게 되어 그것을 실세계에 관련시키는 훈련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¹⁹⁾. 치과위생사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대에는 각 과목을 나열하는 전통적 교육과정보다는 각 분야의 지식과 직무와 관련된 기술을 통합하고 활동현장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통합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무위주 교육이 가능 하다고 본다²⁰⁾.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부응하여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교수 중 72.3%가 ‘치위생 업무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의 48.4%와 학생 49.6%는 ‘임상 분야’라고 응답하여 현재 임상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중 경영관리지원과 치과진료협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김 등²¹⁾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임상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와 학생들은 현재 현장에서 직면하는 업무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수들은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영역에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치위생학의 학문적 포괄 범위에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구강위생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수집단은 72.3%가 응답하여 포괄 치위생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학제간의 연계성이나 국제화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교과운영과 포괄 치위생과정으로 접근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6,22)}.

치위생학 발전을 위해 관련 학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응답자의 54.4%가 ‘치위생학 연구 활성화 및 정보교류’라는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8.4%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학문 분류에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위생학 관련 학회들은 매년 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치위생학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나아가 치위생학 학문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연구 등의 연구과제들이 활발하게 연구 수행될 수 있도록 학회뿐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위생교육인증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4,23)}.

치위생학 교육과정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중요한 현 업무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교수는 ‘구강병 예방진료(59.1%)’, ‘지역사회구강보건(13.9%)’ 순으로 응답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는 ‘환자관리(32.1%)’, ‘치과진료보조(24.2%)’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생은 ‘구강병 예방진료(34.1%)’, ‘치과진료보조(21.5%)’ 순으로 높게 응답하여 대학의 교육목표와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 과목에 대한 다중응답분석결과에서 전공과목 개편에 대해 전체 50.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양과목에 대해서도

27.8%가 개편을 희망하고 있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 국가 시험은 업무중심이라서 포괄치위생교육의 성취도 측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 국가시험은 과목중심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²⁾. 이에 의해 치과위생사 2차 직무분석연구가 진행되었고²⁴⁾,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 중심의 직무와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시험의 출제 방향에서도 기존 암기정보보다는 해석형과 문제해결형 문제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교수는 '전공교육의 분야별 통폐합(4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전공교육의 분야별 체계적인 분류(41.5%, 42.8%)'로 높게 응답하여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 간 견해는 다르지만 현재 전공과목 운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은 교수는 '국가시험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29.2%)', '전공과목의 분야별 통폐합(28.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의 불균형 개선(23.6%, 27.2%)'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의 적합한 비율에서 이론(50%)과 실습(50%)을 교수는 51.8%가 응답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는 '이론(50%)과 실습(50%)'이라는 응답은 47.2%,가 응답하고 학생의 42.8%는 이론(40%)과 실습(60%)이라고 42.8%가 응답하여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⁷⁾.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는 치석제거와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외에도 임시충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구체화되었다⁴⁾.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타당성 검증으로 치위생 기본 업무 수행평가능력은 최고점수 5점에서 전체 3.17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나 임상치과위생사는 3.0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차이가 있었다($p<0.001$). 이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직무중심의 교육방식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3.7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교수가 4.17점으로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국제화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체 2.61점으로 나타나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에 현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대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준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여 해외 인력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고 해외로의 인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활동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⁷⁾. 치위생 교

육은 활동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연계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과제를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하여 실제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위생학 전공자들의 개편방향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함으로써 표준화된 교육과정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이 모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공과목 개편에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학제 간에도 교육과정은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교양과목 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와 학제 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결론

한국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교수, 치위생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최우선 변화의 방향은 교수는 치위생 통합교육과정안 개발(48.9%),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새로운 치위생 교육과정안 개발(51.6%, 42.6%)에서 가장 높았다($p<0.001$).
2.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 변화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 교수는 치위생 고유 업무분야(72.3%), 임상 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임상분야(48.4%, 49.6%)라고 응답하였다($p<0.001$). 치위생학의 학문적 포괄범위에서는 구강위생과 관련된 모든 학문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교수(72.3%), 임상치과위생사(52.8%), 학생(62.4%)의 분포로 나타났다($p<0.001$).
3. 치위생학 발전을 위해 관련 학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교수, 임상치과위생사, 학생 세 집단 모두 치위생학 연구 활성화 및 정보교류를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p=0.091$).
4. 치과위생사 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수와 학생은 구강병 예방진료(59.1%, 34.1%), 임상치과위생사는 치과환자 관리(32.1%)라고 응답하였다($p<0.001$). 전공교육 강화 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서 교수는 예방관련(34.9%)분야, 임상 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임상관련(41.5%와 42.8%)분야라고 응답하였다.
5.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교수(42.4%), 임상치과위생사(55.8%), 학생(48.7%) 모두 전공과목이라고 응답하였다.

6.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임상 치위생 기본임무 수행능력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교수는 3.29점, 임상 치과위생사는 3.05점, 학생은 3.26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01$).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은 교수(4.17점)가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 3.90점, 학생은 3.47점으로 나타났다($p<0.001$).

상기 결과에 의하면 현행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안 개편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치위생 관련 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단체들은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표준화된 교육과정안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References

- Kim SS, Oh JS, Jung SH, Nam YO, Jang GW, Song GH, et al. Clinical dental hygiene 9ed. Seoul: Daehannarae; 2007 : 3-10.
- Kim EK, Kim YJ, Kim JH, Park MS, An GS, Yun MS, et al. Dental hygiene standard education and development. Seoul: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Korean Development Dental Hygiene Professional Association; 2005.
- Jung WK, Kim EK, Choi EM, Jung JY, Kim NM, Jang SO, et al.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in Korea. Seoul: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Korean Development Dental Hygiene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 Hwang MY, Kim YN, Kim YS, Yun MS, Jang GW, Jung YR, et al. Dental hygiene education approve standard study. Seoul: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Korean Development Dental Hygiene Professional Association; 2007.
- Park I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 9(4): 808-23.
- Won BY, Hwang MY, Chun SY.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dental hygiene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America.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 1061-71.
-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Jang JH.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J Korean Soc Dent Hyg 2013 ; 13(1): 1-12.
- Bae SD, Chung WG, Jang JH, Shin SJ. Implementation of assesment in a competency-based dental hygiene science education. Chunan: Korean Development Dental Hygiene Professional Association; 2014.
- Kang KS, Park MY, Lee ES. Basic nursing PBL module development and apprication. J Korean Acad Nurs 2001; 8: 245-58.
- Park UH, Park JH, Park YN. Gyemyung university Medical of PBL existing and experience. Korean J Med Educ 2000; 12: 261-9.
- Kim YJ, Lim CI.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Korean Med Educ Review. 2011; 13(1); 13-23.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kabon.or.kr>.
- Hustler D, McIntyre D. Developing Competent Teachers: Approaches to professional competence in teacher education.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1996.
- Peter ML, Joyce R.M, Elifuraha M, Dorothy AP. New curriculum in dentistry for Tanzania: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patient and population health (2008-2011). J Public Health Policy 2012; 33: S92-S109. <http://dx.doi.org/10.1057/jphp.2012.39>.
- Choi GY, Choi BO, Cheo HS. A study of curriculum change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s. J Voca Educ Res 2010; 29(3): 85-106.
- Hwang M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s in comparison with the curriculum segment of the accrediting criteria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 8(4): 193-204.
- Cho YS, Lee SY. The method of clinical oral hygiene curriculum development.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5; 5: 33-8.
- Kim SS, Kim MK, Oh SH, Mann NK. The implement status of dental hygiene curriculim in Korea and the comparison with the US ADA standard.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 9(3): 229-7.
- Hwang MY, Lee CS. The study of dental hygienist integration curriculum module approach.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7; 7: 595-605.
- Yoo BH. Introduction dental hygiene. Seoul: Yon Sei University; 2007: 97.
- Kim EG, Lim SH, Kwon MY, Choi YY, Han JH. Analysis of tasks and education needs for dental hygienist for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Sci 2014; 14(1): 35-42.
- Lee H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 9(4): 808-23.
- Kim JY, Kim YS, Jung SH, Shin JW. The necessity for the Korean Dental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 J Korean Soc Dent Hyg 2014 ; 14(6): 789-94.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6.789>.
24. Park JR, Kang KH, Kim SA, Lee GY, Lee SM, Jang JH, et al. Dental hygienist's 2nd job analysis research.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2.